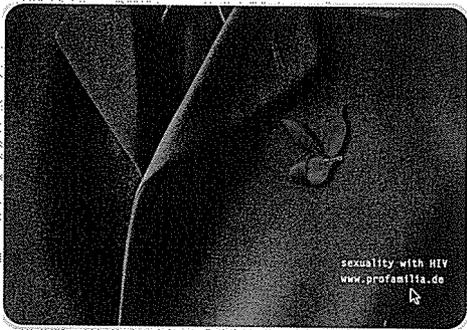


광고3) 광고대행사-The Bridge, 글래스고우



광고4) 광고대행사-Springer & Jacoby, 함부르크



광고5) 광고대행사-Palla, Koblinger-Proximity, 비엔나

광고 있다. 에이즈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자꾸 에이즈에 대해 이야기하라는 카피. 이 광고를 내보낸 주체가 에이즈에 대한 무료 전화상담을 해주는 에이즈 핫라인 인포서비스(프랑스)임을 알게 되면 더욱 수궁이 간다. 박스 안의 레드 리본 마크를 전화선으로 표현한 디자이너의 섬세함도 귀엽다.

심플하지만 강력한 경고 메시지

광고3)은 스코틀랜드의 에이즈 예방광고이다. 역시 콘돔 사용을 권장하는 광고이다. 여성들에게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남자와 관계한다는 것은 마치 남이 사용했던 삽입식 생리대를 자기 몸에 삽입하는 것과 같은 게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아마 이 광고를 본 여성들은 콘돔 없이 하는 섹스에 대해 상당한 찝찝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

광고4)는 독일의 민간단체인 Pro Familia의 공익광고이다. Pro Familia 매년 18만 5천여 명의 청소년에게 성교육을 하는 등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보호와 관심, 후원에 대한 지지를 상징하는 레드 리본 대신 그 유명한 플레이보이의 상표인 토끼 마크를 붉은 색으로 바꿔 꽃음으로써 아주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플레이보이의 말로는 결국 에이즈일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은...

오스트리아에서 집행된 광고5)는 노골적으로 콘돔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웃고 있다. 비주얼도 그렇지만 카피는 더욱 그렇다. 작역하면 '콘돔 없이 하는 것들은 오직 인체 모형 뿐'이지만 인체 모형=dummy는 속어로 바보, 멍청이가 아니던가...